

大學院教育과 教授의 供給

朴 東 緒*

<目 次>

- | | |
|-------------------|---------------|
| 1. 序—研究目的 對象 및 方法 | 4. 教授의 質的 向上 |
| 2. 教授人力の 需給 | 5. 教授의 社會的 寄與 |
| 3. 教授의 任用 | 6. 結 語 |

1. 序—研究目的 對象 및 方法

大學教授에 우수한 人力を 吸收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전 까지만 해도 多分히 傳統的으로 인정된 높은 社會的 評價로 어려움이 없었으나 최근에 大企業의 發展에 따른 誘因의 증대로 인하여 教授職의 社會的 評價가 상대적으로 低下하고 있는데 급격한 大學生의 증원그것도 地方大學에 이루어져 우수한 教授人力の 大量 吸收가 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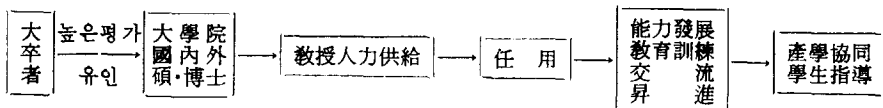
따라서 여기서는 이와같이 급격히 증가한 수요를 어떻게 供給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게 되는데 더욱 문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우수人力이 교수가 되겠다고 決心을 하게끔 하는 誘因體制부터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誘因體制가 강구됨에 따라 교수가 되겠다고 決心한 사람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 (大學院의 碩·博士課程 國內外)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양성된 人力を 大學으로 吸收하는 첫째 關門인 任用制를 검토하고 任用된 후의 계속적인 能力發展을 위한 方案을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에 訓練, 教育, 交流, 昇進 등의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하여 우수 人力이 大學教授로 任用되고 이와 동시에 계속적인 能力發展을 이룩함으로써 얻어진 能力을 社會와 產學協同을 통해서 또는 學生教育을 통해서 봉사하게 됨으로 이러한 社會에의 기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상의 目的과 範圍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教授

이와 같은 문제는 현재 서울地方을 막론하고 共通的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의 文化的인 事情 때문에 地方大學의 경우 극심하게 어려운 문제로 인지되고 있으며 그의 주요 이유는 大學生의 엄청난 증원이 地方大學에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地方大學의 경우는 현재도 교수인력의 취약성이 심하므로 앞으로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한국의 大學教授 一般의 문제도 다루겠으나 특히 焦點을 地方大學에 두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研究方法로서는 기존의 연구문헌, 教育行政專攻教授 및 地方의 3個 國立大(全北, 忠南, 忠北大)의 總長, 教務處長을 地方에 가서 면접을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현재 地方大學에 근무하고 있는 教授 31名으로부터 질의표에 의한 답을 주요자료로 하고 研究者의 教授로서의 體驗과 人事行政專攻教授로서의 識見과 判斷에 의존하였다.

2. 教授人力の 需給

우선 需要와 供給으로 나누고 供給은 첫째로 教授職의 평가와 誘因, 둘째로 短期的 方案으로서 海外人力の 유치와 國內大學間의 交流를, 長期的인 것으로는 國內外의 大學院에서의 碩·博士課程을 고찰하고자 한다.

가. 需 要

教授人力の 需要에 관해서는 이미 教育開發院이 作成한 長期教育計劃에서 연구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決定하게 되는 여러 變數가 앞으로 確定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극히 流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선 學生數의 증원이 向後 5年間 每年 얼마씩 이루어질 것인지 豫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즉 79年度와 같은 數로 증가 할것인지 그것 보다 더 증가 또는 감소될 것인지 豫測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한 教授와 學生數의 比率은 先進國의 수준과 같이 10~20에 근접할수록 바람직하나 이에는 막대한 돈이 소요되므로 不可能할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어느 比率의 선에서 수요 측정을 할것인가 하는 것도 다분히 政治經濟的인 판단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수요는 어떠한 수가 나와도 現人力の 문제를 고려함으로써 新規養成, 充員으로서 必要한 所要가 계산되는데 이 點에 있어서는 分野別로 엄청나게 다르며, 또한 추정 자체가 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學生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自然科學系의 여러學科, 經營系統, 人文系의 여러 學科別로 現在 教授가 될 수 있는 能力의 所持者數, 이들의 選好性 등을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알아야 앞으로 얼마나 소요되며 또한 신규양성하여야 할 것이라는 수의 측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一且 教授의 수요, 소요를 추정하였으나 앞으로 너무나 流動性을 떨것으로 생각되어 정확을 기하기는 어렵고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教授職에 대한 평가가 저하되고 우수한 學卒者가 大學院에 진학을 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 우리의 國力의 신장이 高級人力에 주로 의존하여야 한다는 點에서 불적에 큰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供給에 焦點을 두고 검토하고자 한다.

나. 供 給

供給에 있어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상술한 圖示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수한 人才가 大學院에 진학한 후 教授職을 일차적으로 희망 선호할 수 있게 하여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걱정을 과거에는 할 必要가 없었으나 60年代 後의 私企業의 急成長은 이들이교수직에 못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유인을 제공하고 있어 심한 경쟁관계에 서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수한 人力을 그쪽으로 빼앗기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우선 우수한 人才가 大學院, 教授職을 1次的으로 선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方案(社會的 評價의 向上, 이를 위한 誘因體制의 形成과 提供등)을 검토한 후 이에 따라 流入해 들어오는 人力을 단기 장기적으로 어떻게 양성 공급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자 한다.

(1) 社會的 評價와 誘因體制

(가) 大學院教育和 教授職의 貢獻性 및 有用性의 認識

얼마전까지만 해도 大學院教育和 教授職이 그런대로 높은 社會的 評價를 받았던 것은 오랜 傳統을 갖고 있는 儒敎文化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大學院教育이나 教授職이 실제 우리 社會의 發展에 얼마나 공헌하며 이들이 교육을 받거나 가르치는 것의 對價報償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經驗的으로 계산을 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의미에서는 이의 價値를 덮어놓고 믿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던 것이 次次 사람들의 생각이 世俗化되고 打算的이 되어 가며 따라서 이들의 공헌도, 投入에 대한 報償등을 계산하게 되어가고 있었는데 우리의 社會, 經濟的事情은 이들을 높이 평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이의 주요이유는 大學院教育을 經歷으로 一般社會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學卒者와 同一하게 취급하는가 하면 우리 產業도 거의 현재까지 少數의 學卒者와 絶대다수의 高卒以下의 기능공만이 必要한 狀態에 있었던 것이다. 즉 환언하면 간단한 기술도입이나 하여 손재주 좋은 技能工을 시켜 加工하여 生産하는데 그쳤지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기술개발을 할것은 거의 생각조차 하지 않는 狀態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손으로 벌었지 두뇌를 가지고 벌려고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大學院

教育이나 教授職의 實用的 價値를 높이 평가할 수 없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거의 큰 大學에는 다 大學院이 있었으나 실제 창의적 독창적인 연구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보다도 하나의 큰 대학으로서의 장식, 구성요소 또는 大學校로 인정받기 위한 必要條件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이 극히 소수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사실이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事情이 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의 주요 내용은 우선 너무 교수직의 社會的 評價가 私企業을 위시한 他職業에 비하여 低下하고 있는데다 특히 지난 1年間の 好景氣나 인프레는 우리의 輸出産業의 海外進出을 급속히 어렵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되자 이제 우리 經濟力의 向上은 技能工의 손으로부터 技術者 科學者의 두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의 변화는 우리가 싫으나 좋으나 우리의 生存 및 지속적인 成長을 위하여 不可避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수한 大學, 大學院의 교육이 必要한데 이제와서 보니 이들의 社會的 評價가 상대적으로 저하하여 우수한 人力이 이쪽으로 流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大學院教育과 教授職이 當面하고 있는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 解決이 장기간을 요하는데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 자체는 당장 해결을 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은 大學院教育 및 教授職이 우리 社會發展에 긴요한 공헌을 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앞으로 크게 할 것이라는 汎社會的인 認識인 것이다. 이러한 공헌성, 유용성에 대한 인식 없이는 과거와 달라 이들의 社會的 評價가 높아질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었다.

(나) 政府에 의한 綜合的誘因體制의 形成과 發表

大學院教育과 教授職의 價値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社會的 評價를 단시일 내에 크게 向上시키기 위한 誘因體制의 綜合的인 구상과 이의 發表는 政府가 우선 先導的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私企業은 目前的 利害關係에 좌우될 가능성도 많고 그들의 영향력은 政府에 비하여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政府는 이미 部分的으로 착수되고 있지만 이 제재에 보다 종합적 체계적인 誘因體制를 多角度에서 구상하여 公開 發表하고 이에 따른 실천을 政府만이 아니라 私學, 私企業도 하도록 유도 지도해 나가는 것이다.

(다) 碩·博士에 대한 우대

解放後 부터 60年代 末까지 日政時에 勉學의 길이 열리지 않아 高等教育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大量的으로 大學院의 研究課程, 碩·博士 課程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들의 동기는 勉學도 있었지만 인습적인 學閥, 看板取得에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제각기 많은 사람이 자기 돈으로 大學院에 진학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公式的으로 우리 社會에서 이러한 면학 또는 碩, 博士의 취득이 인정을 別로 받지 못하게 됨을 알게 됨과 동시에 한쪽에서는 심지어 白眼視 하거나 못하게 하는 일까지 70年代에 와서는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變化의 원인을 이해 할수도 있으나 이러한 움직임의 뒤에는 이들의 質의 低下와 非大學院 修了者의 반발 시기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치는 우리의 發展을 가로막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缺點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개선 시정하려고 하지 않고 利點이 있는 것을 송두리채 못하게 하여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指向하여야 할것은 大學院教育의 質的向上과 이에따른 우대가 汎社會的으로 制度化되어야 하는 것이다.

現在와 같이 學部卒業을 거의 모든 고용주들이 요구하고 이들에 대한 經歷 및 處遇를 하고 大學院에서의 1,2年間의 수학 또는 碩士學位者를 別途로 우대하지 않고 있어서는 大學院進學의 유인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博士는 別途로 우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으나 이의 취득도 外國과 國內間의 차가 큰것 같고 外國에서의 취득가능성, 취득기회는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國內에서의 경우 博士課程의 소요시간도 엄청나게 길지만 이에 比하여 教育의 실적 성과는 크게 不實함으로서 制度化 또는 本軌道에 오르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인것 같다.

따라서 특히 앞으로는 碩, 博士의 質的向上과 이에 따른 우대가 制度化되어야 하며 이를 단시일내에 기하기 위하여는 碩, 博士 課程에의 就學이나 學位認定을 各大學에서도 하지만 政府나 關聯學會가 주관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며 우리의 경우 해볼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후의 장기방안 참조)

(라) 大學院 教育에 대한 投資增大

大學의 責任者가 大學院教育이라고 하는 것을 學部에 부수적인 것 또는 장식물로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數가 많은 學部生들에 지나치게 關心이 경주되다 보니 大學院教育을 극히 소홀히 취급해온 것이 사실인것 같다.

大學院教育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學部에 비하여 막대한 投入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고사하고 收入의 源泉 또는 學生을 통한 學校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까지 간주하고 운영해온 경우도 있는것 같다.

이러한 狀況에서는 大學院에 우수한 人力이 들어 올수도 있지만 들어와도 기대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政府는 私學과 같이 大學院의 교육에는 學部와 다른 比率의 投資를 하여야 하며, 政府가 선도하고 私學이 이에 따르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의 具體的인 內容으로서는 장학금, 강사료, 강의시간의 계산, 교재준비를 위시한 行政支援費 등이 學部보다 높은 比率로 책정지출되어야 하며 私學의 경우는 學生數가 급증하는

때 따른 收入의 증대가 있으므로 이의 支出面에 대한 지도 통제가 있었으면 한다.

(마) 教授의 業績評價와 差等報償

教授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 全員을 우대한다고 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질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수에 대한 報償의 特色은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도 없게 되어 있으며 業績에 근거한 成功感을 갖게 하는데도 未及한 點이 많다고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교수직에 一旦 임명이 되면 거의 자동적으로 승진이 되고 또한 보수의 차도 계급에 따라 별 차이가 없어 열성적으로 업적을 이룩하게끔 동기부여가 힘들게 되어있다고 하는 것이다.

얼마전에 再任命制가 이룩되었으나 앞으로는 교수들의 실적, 업적을 더 엄격히 평가함으로써 승진 재임명에 반영토록 함과 동시에 큰 업적을 이룩한 교수는 보상상의 차등을 크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함으로써 열성적으로 能力을 다하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이러한 업적을 이룩한 교수는 그에 상응한 보상을 物質的 非物質的으로 받게 함으로써 他職業에 진출한 사람에 비하여 成功感에 있어서 뒤쳐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國立大學의 교수들이 받는 최고액은 軍人의 大領級이나 行政職의 二級에 상응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學長 總長들의 보수는 높다고 할지 모르나 이러한 생각은 교수직을 行政職과 같이 階層的으로 생각하는데 있는 것이다. 교수직은 연구직인데도 이의 최고액이 學長보다 당연히 적어야 한다는 생각을 무분별적으로 적용하여 왔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직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行政職을 맡으려고 志向하게 되며 따라서 연구직이 천대되고 有能인이 연구직에 있으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보수상의 차이만이 아니라 長에게는 車輛, 辦公費 등 기타 여러가지 혜택이 점점 커지고 있어 연구직의 유인 동기부여가 오히려 逆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이러한 點에서 우선 급히시정되어야 할 것은 교수직의 최고호봉액을 대폭 引上함과 동시에 大學에서의 行政職이 교수직 위에 군림하는 것 같은 보수기타의 특혜를 크게 주어서는 연구기관을 一般行政의 階層機關化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우수한 업적을 이룩한 교수는 승진되어 보수만이 아니라 一般社會團體나 行政府에서 成功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여러 惠澤이 이들에게도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시하면 車輛의 제공, 면세구입, 조수나 비서의 제공, 도서관 정보수집비 등의 제공인 것이다.

우리의 경우 우수한 연구인력이 있는 大學의 교수 보다 行政府의 직원, 大學의 行政職이 더 많은 附加的惠澤(fringe benefits)을 받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바) 研究興件의 造成

교수직은 어느 價値보다 知識價値를 추구하는 것을 本業으로 하는 직업이며 따라서 이들에게 큰 유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지식가치를 별다른 제약, 어려움없이 추구할 수 있

는 研究與件의 造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點에서 人文, 社會科學系의 경우는 圖書館, 研究室의 구비가 무엇보다도 重要하며 自然科學系의 경우에는 實驗裝備을 구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點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大學圖書館을 보면 어느 하나의 大學도 만족할만한 國際水準에 도달하고 있는 곳이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人文 社會系의 교수들은 적은 돈에서 제각기 個人的으로 도서 잡지를 구매하고 있어 비용은 비용대로 個人的으로 아까운 돈을 쓰고 있으면서 充分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며 自然系는 실험 없는 연구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點에 있어서 國立大學에 대하여는 政府가 앞으로 圖書, 研究室, 實驗裝備에 중점적으로 投入하여야 하겠으며 私立大의 경우는 現在 몇개의 大學을 除外하고는 이들의 自發的인 投資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과거의 行續으로 보아 充分히 추측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大學의 定員增加와 이에 따른 收入의 증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點에 政府가 關心을 갖고 이를 근거로 하여 앞으로의 定員增加에 反映이 되었으면 함과 동시에 또 한가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政府가 外貨豫算을 국고 또는 차관으로 확보하여 私立大學에 지원하되 이것을 받는 大學은 그만큼 돈을 전출한 교수들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도서 연구실, 실험장비 등에 投資케 유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는 경우의 利點은 약간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外貨를 이용한다는 것, 연구에 가장 重要한 것을 지원한다는 것, 이러한 支援에는 不條理가 介入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이러한 지원의 혜택을 교수, 학생이 다같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을 작금 제기되고 있는 私立大學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제공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므로써 地方의 國立大學은 물론 모든 私立大學들이 大學다운 大學이 될 수 있게 研究教育機關으로서의 內實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點에서는 이러한 與件을 비교적 좋게 갖추었다고 하는 서울大의 경우도 아직 바람직한 狀態에 비교하는 경우 상당한 차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短期的인 供給方案

여기의 短期的인 案은 이미 교수로서 資格을 갖춘 人力을 수요가 큰 곳으로 단시일 내에 이동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며, 크게 國外로 부터의 供給과 國內의 地域間의 交流를 생각할 수 있겠다.

(가) 國外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난 30年間 많은 우수한 人員이 國外的 여러 저명대학에서 수학을 하였으며 이들의 大部分이 여러가지 이유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귀국하지 않고 그들이 학업을 마친 國家에서 근무처를 찾아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정이 많이 變化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그의 주요 이유는 무엇 보

다 한국의 經濟力의 向上, 生活條件의 向上 外國에서의 差等등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이제에는 과거와 달리 우리가 유의할 것은 수급간의 정보교환과 약간의 유인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國內大學에서의 교수직의 수요를 종합하여 海外에 보내어 그곳의 韓國新聞에 광고를 내고 이와 동시에 문교부가 파견한 장학관이 직업안정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 교수직을 수요로 하는 各大學이 제각기 이러한 廣告와 직업 안정의 기능을 수행하기는 힘들 뿐만 아니라 不充分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둘째 이들이 귀국하는데 있어서의 큰 애로는 이제 과거와 달리 엄청나게 많은 보수를 여기에 있는 동료교수보다 수령하는 것보다도 우선 당장 안주 할 수 있는 주택과 처음의 「정착비」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주택의 경우는 이미 政府가 特殊法人으로 세우고 있는 많은 研究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것은 아니나 우선 급한대로 비용을 절약하려면 임대로 하고 3年乃至 5年 以下の 기한부로 하여 귀국직후의 안주, 정착을 돕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一部 大學에서 하고 있는 식으로 大學이 직접 약간의 Apt.를 건설하여 外國으로부터의 교수만이 아니라 國內敎授들의 交流用으로도 이용한다든지 또는 더 나아가 교수간 또는 교수와 학생간에 숙식을 같이하면서 대화,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할 수 있으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 「정착비」의 경우는 귀국 첫해에 연구비를 200萬원 정도 지급하므로써 연구의 지속과 정착에 소요되는 生活, 研究上 소요되는 物品의 구입에 충당케 함으로써 귀국직후의 연구교육 의욕의 좌절이 야기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세째로 外國의 大學에서 休暇(Sabbatical leave)를 받았거나 한국에서 연구를 할 돈을 갖고 온 사람에게 우선 1年 동안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소요되는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시험을 스스로 한후 永住 與否를 決定케 하여 가급적 많은 人員이 定着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 國內大學, 地域의 交流

國內大學, 地域間의 交流는 지금 실시하고 있으나 이의 實效가 別로 없어 이의 效率化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구상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서울에서 地方大學으로 가는 경우는 반드시 두가지 任務를 가져야 한다. 하나는 꼭 강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地方大學 敎授들과 共同研究를 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適當 時間을 9시간이 아니라 6시간으로 하여도 좋으나 강의는 꼭 하여야 하며 이의 유인을 위하여 滞在費, 研究費와 別途로 강사료를 지불하되 그의 단가는 通常單價보다 높게 함으로써 유인적인 기능을 갖게 한다.

滞在의 편의를 위하여 地方의 各大學은 적은 Apt.의 임대를 제공 알선하는 것이 요망되

며 研究費는 現在와 같이 80萬원으로 하지 말고 地方大學의 3名 內외의 教授 및 大學院生 (조수)들과 같이 할 수 있는 研究費가 지급되었으면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것은 교수나 교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能力 向上에 共同 研究같이 중요한 것이 없으며 또한 이는 한사람이 가서 多數人의 研究能力을 동시에 向上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것은 美國人들이 처음에 우리의 能力이 심히 不足할 때는 一方的으로 大學院 에 데려다가 學生으로서 교육을 받게 하였으나 그후에는 이러한 共同研究를 시도하였으며 筆者도 몇차례 이러한 研究에 참여 하였으나 이의 體驗에 비추어 가장 效率性이 있다고 보 여지기 때문이다.

둘째 地方에서 서울에 오는 교수의 경우는 청강, 강의, 공동연구, 學位課程의 이수등 自由로 할 수 있도록 本人이 선택케 하는것이 소망된다.

세째 교수들의 交流는 서울과 地方間만이 아니라 同一 地域內의 大學間에도 必要하다. 이러한 例는 서울의 延大, 梨大, 西江大間에 볼 수 있었으며 이의 증진을 위하여 강사료, 學點의 인정에 있어서 特別考慮가 있어야 할것이다.

네째 이와 같은 交流가 이루어지려면 各 大學의 강의시간의 確定이 최소한도 6개월 또는 半년간의 것은 1年前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함께 사전계획이 作成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서울에서 地方으로 가는 교수의 경우는 그들의 근무 기간을 經歷上 계산하는데 加點을 주는 것이다. 例示하면 1年 근무시 이의 1.3 또는 1.5倍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의 교수들이 地方에 현재 가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지만 國家的으로 크게 必要하므로 이의 功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當然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것은 軍人들이 海外에 근무하거나 英國人이 印度나 馬來에 와서 근무하는 경우의 우 대에도 이러한 例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方法은 强制性 없이 유인을 제공하여 本人들이 自發적으로 決定케 하는데 중요한 意義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專門職業人에게는 强制性은 극도로 피하여야 할 事項들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많은 세미나 研究發表會가 개최되고 있는데 이들의 大部分이 서울의 교수들끼리 서울에서 또는 地方의 호텔에 가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地方에 가는 경우에는 그 地方 교수들의 참여가 거의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인 것이다.

이를 시정하는 구체적인 方法으로서는 정부 특히 우선 문교부가 주는 돈으로 하는 이러한 모임에는 반드시 一定比率 以上の 地方大 교수들의 참여를 요청하거나 또는 더 나아가 全國의 中心地인 大田근방에서 개최함으로써 호남, 영남에서 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문교부는 이를 출선 권장하거나 조건으로 하여 學術支援을 하되 他政府機關이나 學術財 團으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서 地方大學教授들의 能

力發展에 도움이 크게 될 것으로 생각됨과 동시에 서울의 교수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현재各大學에서 비교적 제도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各科目의 강의계획서를 大學間에 교환함으로써 교수들의 能力發展이나 강의에 도움을 주는 것을 들 수 있을것 같다.

(3) 長期的인 供給方案

長期的인 方案은 정식으로 大學院에서 碩, 博士課程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大學院의 수는 많으나 學生의 質, 의욕이 低下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의 부실성이 별로 시정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基本的인 문제는 이들의 質的 向上이 先行되어야지 이를 그대로 두고 量的 擴大만 초래하는 것은 先後가 역전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方案을 든다면 다음과 같다.

(가) 大學院教育의 受惠者가 學生만이 아니라 그들이 修了後 봉사할 國家나 社會라고 하는 생각을 우선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文敎豫算이 不足하다 보니까 大學의 교육비는 受益者負擔의 原則에 따라 學生이 많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잘못 생각되어 大學의 私教育費를 엄청나게 引上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의 受益者를 學生만으로 생각을 한 것이 잘못이며 오히려 더 큰 受惠者는 學生보다도 그가 봉사하고 있는 社會, 國家라는 것을 인식하고 과거의 잘못된 생각이 우선 시정되어야 政府에서 大學에 투자할 수 있으며 學生들의 教育費의 부담이 감소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나) 大學院生의 選拔과 教育

政府支援의 가능성, 교수인력에 대한 수요등을 감안하여 每年 一定數의 大學院生을 선발하는데 이의 관리를 문교부가 하거나 또는 分野別로 學會가 관장케 하는 것이다.

이의 선발시험에는 共通的인 科目으로서 語學, 數學, 및 專攻科目을 시험케 하며 後者의 경우는 특히 學會가 관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실시한 시험의 결과 우수한 人員을 外國에 유학케 하고 2流級은 國內大學院에서 과정을 이수케 하되 政府가 그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가 있어서는 안될 것은 이 시험에 不合格한 者는 大學院에 진학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進學은 하지만 政府의 特別한 支援이 없다는 것이다.

(다) 大學院의 教育能力의 평가

현재 大學院課程을 갖고 있는 大學들의 大學院教育能力에는 차등이 심하므로 어느 大學院에게나 관계없이 特別支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가 되고 大學院의 質的 向上을 기하기도 힘든 것이다.

따라서 全國의 大學院의 교육능력을 科別로 專攻教授들의 學位別 專任人員數, 研究業績

論文, 著書數 등의 세가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여 能力이 있다고 평가되는 大學院에 상술한 合格者를 各自入學케 하는 것이며 이러한 大學院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만 政府는 지원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그외의 大學院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전술한 不合格者의 경우와 같이 自由이나 政府의 特別支援은 없다는 것이다.

(라) 이때의 選拔은 現在와 같은 學部修了라고 하는 單一基準으로 하지 말고, 學士, 碩士 2元的으로 選拔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그의 첫째 이유는 이제 우리의 교육능력도 碩士까지는 어느정도 國際水準에 와 있다는 것, 둘째 이들의 경우는 國內에서 하거나 外國에서 博士課程을 하거나 時間節約, 費用節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外國의 博士課程에 들어가게 하는 경우 博士豫備試驗을 2~3년에 이수케 한 후 귀국케 하여 가르치면서 論文을 作成케 하면 一石二鳥가 되기 때문이다. 넷째, 이와 같이 碩士修了者도 別途 기준으로 선발하는 경우 國內大學院의 碩士課程의 평가가 上昇할 뿐만 아니라 學生들의 학구욕도 높아지고 質的向上을 크게 기할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다섯째, 이러한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의 하나는 碩士와 博士間의 中間學位를 창설하여 우선 여기까지 이수케 한 후 後日 博士課程까지 이수케 하는 것이다.

(마) 이와 같이 선발되고 能力있다고 평가받은 國內외의 大學에서 이수하는 學生에게 주어야 할 特典 또는 政府의 支援은 첫째 兵役上의 惠澤인 것이다. 兵役上의 惠澤이라고 해서 免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한정된 사람들에게 복무기간을 1년이하로 단축시키는 것이며 自然科學 分野만이 아니라 社會科學, 人文系도 同一한 惠澤을 주는 것이다. 完全免除는 하지 않는 것이 國土防衛에 關心을 갖는 교수, 한국인을 양성하는데 필요하다 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둘째 外國留學의 경우는 全額을 지원하겠으나 그것은 每年 外國에서의 성적을 평가하면서 지원하여야 하며 國內의 경우는 大學院生에게 최소한도 自己돈을 들이지 않고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은 있어야 하며 이 이상의 돈이 소요되는 學生에게는 대여금의 편의를 제공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것은 大學院生을 대폭 有給助教로 任命하는 것이다. 이의 利點은 우선 문교부가 現金으로 지원할 必要가 없다는것, 둘째 교수들과 긴밀한 접촉을 贊助의 연구를 통하여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에 진전이 클 수 있다는 것, 셋째, 교수들의 연구에 도움이 크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전에 시정되어야 할 것은 助教를 교육적인 일에만 종사케 하여야 그의 實効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바) 碩, 博士課程의 內實化와 所要期間을 단축하는 것이 소망스럽다. 현재 우리나라의 大學院은 不實하게 운영하면서 期間만 길게 하고 있어 지극히 非效率的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內實을 기하여 철저히 교육을 시키되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1977年の 조사에 의하면 社會科學分野의 專任으로 初任되는 平均年齡이 31~2歲이며 따라서 大卒後 거의 10年을 自己돈 投入하면서 공부하고 專任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不安한 生活을 10年間 하여야 한다는 것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큰 문제가 되며 아무도 이러한 不安을 예상하면서 교수가 되고자 할 사람은 別로 있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 集團指導를 통한 內實化를 기하는 것이 요청된다.

大學院의 경우 人員數가 적으니까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가 情誼化 되어 內實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現在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學點의 強制配分, 論文作成의 計劃書發表를 교수들이 集團의으로 지도하는 것은 물론 博士課程의 경우 各科目마다 論文을 作成케 하고 이의 發表를 교수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하게 하며 이의 保管은 學校의 도서관에 永久保存케 함과 동시에 每科目의 독서량을 교수들이 集團의으로 一定量 以上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方法은 筆者가 근무하고 있는 大學院의 碩, 博士課程에서 실시하고 있어 획기적인 成果를 올리고 있는 方案인 것이다.

이와 같이 集團의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우 全員 A이고 독서량이나 論文의 질이 엄청나게 低下하고 등록비만 내고 (All A)로 수료되는 것이 常例이기 때문이다.

3. 教授의 任用

教授의 任用에 있어서는 그들의 직책상 實力있고 研究와 교육에 關心, 興味를 갖고 장기간 정진할 수 있는 사람이 선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現在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는 경우 몇가지 시정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가) 가급적 公開任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에 閉鎖的인 任用을 많이 하여 온 결과 人事權者 先任教授들이 個人的으로 알고 있는 사람 또는 弟子中에서만 선발하다보니 우수성에 있어서 떨어지거나 또는 지나치게 學閥意識에 사로잡히게 되어 學問, 大學의 발전에 지장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事實은 弟子가 그들의 恩師와 같은 大學에서 재직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能力發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 大學, 한 學科의 교수들이 지나치게 同質性을 갖는 경우 그 學科나 大學의 發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갈등의 結이라고 하는 點에서도 설명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점차로 公開募集의 方向으로 나가고 있음은 多幸이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人事權者들이 外部의 영향력을 받기 쉽다고 하는 것과 現職教授들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양자간의 適材 有能者를 선발하는데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公開募集을 돕는 方法으로서 每年 產出되는 碩, 博士의 名單을 論文名과 함께 全國의 大學에 보내주는 것도 생각해 볼만한 것으로 본다.

현재 이러한 需給에 관한 集權的管理가 없으므로 各大學은 비싼 돈으로 日刊紙에 한번 밖에 廣告를 내지 못하고 있어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의 기회를 놓치게 되기때문이다

(나) 資格에 있어서 依例히 博士를 요청하고 있으나 바람직 하기는 하지만 문제가 있으며 이에 고집하다 보면 充員도 힘들고 오히려 엉뚱하게 看板으로서 博士를 획득한 年老한 人物을 充員하는 것을 보게 된다.

따라서 너무 學位에 집착하지 말고 그의 能力, 潛在力, 研究에 대한 興味, 年齡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하기도 하며 不可避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가급적 젊고 能力發展의 가능성이 많은 人物을 任用하는 것이 能力發展의 가능성이 없는 看板으로서의 學位所持者보다 未來를 위해서는 선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앞으로 몇년간 多數의 교수 인원이 任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너무 既存의 形式的 規程을 고집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다. 例示하면 論文두편을 2年 以內에 刊行된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것, 提出書數의 수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것 등이다.

論文하나라도 또 2年內가 아니더라도 質的으로 우수하기만 하면 形式的要件에 관계없이 任用이 될 수 있게 完化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關聯分野에서의 實務經驗도 研究經歷에 환산하는데 너무 야박하게 하는 것도 完化되어야 하며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다) 教授의 定員을 大幅 증대하고 일적 配分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學生數의 증원에 따라 教授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豫測될 수 있으나 특별히 大幅 증원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現地方大學의 교수중 그들의 能力發展을 위하여 一部 또는 상당한 수가 교실을 떠나 서울, 外國에서 연구 연수에 종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增員의 시기를 일적하여야 公開募集을 거쳐 適時에 任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公開募集을 國內 外的으로 하고 이들의 자격을 심사하려면 최소한도 6個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술한 교과외의 편성도 그러하지만 學生, 教授의 증원이 동시에 최소한도 6個月 이상 앞질러 決定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 任用節次와 階級

명실상부한 實力을 갖춘 박사학위 소지자를 專任講師로 임명하는 것은 止揚되어야 하며 처음부터 助教授로 任命되어야 하고 이러한 點에서 各級學校가 갖고 있는 TO中 專任講師와 助教授는 그의 數를 各各 固定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專任講師로 任命하는 경우 이의 法的任命權이 총장에게 있는 것이고 그후 승진시에는 長官이 人事權을 行使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우선 專任講師의 任命만은 문교부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게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다) 總, 學長들의 교육관리에 관한 理解增進을 위한 努力이 있었으면 한다.

現在 많은 大學의 총학장 중에는 너무나 교육관리에 관한 이해가 희박하여 교수의 任用, 資格에 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큰 大學의 운영은 고도의 管理能力이 必要한데 그러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아 不實運營, 教授, 學生들의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大學이라고 하는 組織의 成果는 큰 比率이 총학장의 力量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 둘째로 이제는 교육이나 管理는 약간의 體驗으로만 體得될 수 있는 영역을 초월할 정도의 專門性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能力發展을 위한 것으로는 문교부에서 하는 총학장회의가 아니라 이분들끼리의 세미나 토론회의 광장을 정기적으로 자주 마련하되 이분들 중, 교육관리에 관하여 一家見, 또는 他人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발표하고 토론에 들어가거나 저명한 교수를 초빙하여 對話를 나누어 보는 것이다.

이와같이 엄청난 權限을 가진 총학장이 바른 이해를 교육 관리에 관하여 갖고 올바른 大學運營을 하는 것이 교수 학생의 不滿을 적게하고 연구면학에 전념케 하는 策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분들의 自發的인 이해의 증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시간이 소요되며 앞으로 급속히 變化가 닥쳐 올 것을 예상하는 경우 그분들이 장악할 막대한 資源의 向方, 영향력의 行使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고 자칫하면 大學의 發展이나 國家社會의 發展을 위한 策은 이제 우리의 경우 옳은 發展政策을 구상하고 집행하는데 의존하여야 하며 단순히 少數 有力者의 잘못된 判斷을 放任하거나 이들을 放任함으로써 호감을 사는데 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4. 教授의 質的向上方案

앞에서 논의된 것도 전부 教授의 質的向上을 위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多分히 현직교수의 質的向上을 위한 것에 焦點을 두고져 한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교수들의 質的向上이 別로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學生, 社會로 부터 요청이 적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국이 外部로 부터도 적었으며 또한 교수사회 자체내에서도 別로 강하게 요청되지 않아 一旦 專任으로 任命이 되면 계속적인 能力發展을 위한 적극적인 努力이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문제, 상황이 달라져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學生들의 質이 월등히 向上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해결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能力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수의 승진제, 學位課程, 研究支援, 外國留學 등을 순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해보고져 한다.

가. 昇進制

앞에서 昇進의 평가에 있어서 能力業績 위주의 평가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現在 昇진에 소요되는 年限數가 규정되어 있는데 교수들의 기대는 이 年限數만 차면 누구나 自動的으로 昇진이 되는 것으로 강한 기대를 하고 있으며 人事權者 또한 이러한 기대를 外面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現在의 지배적인 大學 文化의 한 단면이라고 할수 있겠다.

그러나 昇진에 소요되는 年限의 現규정은 年限만 되면 곧 누구나 昇진이 되어야 한다는 뜻의 규정이 아니고 이것은 昇진에 소요되는 최소한도의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다. 따라서 昇진이 되려면 이러한 규정에서 하고 있는 최소한도의 年限이 경과된 교수 중에서 業績을 평가하여 昇진케 하는 것이 原則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行政組織과 같은 階層別 TO는 소용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경직성 있게 고집할 必要는 없으나 助教授, 副教授, 正教授의 자격은 실적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이에 비추어 昇진자격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요한 것을 첫째 自動的으로 최소년한만 차면 昇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나 기대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이해를 누구나 갖도록 할 것이며, 둘째 階級別로 요청되는 실적상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적을 이에 따라 평가하고, 셋째, 평가에 있어서는 실적이외의 요인은 가급적 배제하기 위하여 多數人 무기명으로 하거나 學會에 依頼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

나. 學位課程의 이수

여기의 學位課程은 國內大學에서의 學位課程을 의미하며 現在自己가 소속하고 있는 大學에서 하지 못하고 他大學에서 하게 하고 있는데 이의 취지는 充分히 이해가 되고 있으나 이에 수반되는 문제가 몇가지 있는 것 같다.

우선 能力發展에 도움이 되는 學位課程을 설정하고 있는 大學이 가까운 곳에 없는 경우의 問題인 것이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이제는 自己所屬大學에서 이수하는 경우에도 非情誼的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 地方大學의 요청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 學内の 文化가 그와 같은 정도로 改革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적으로 제한 규정을 철폐하는 것보다는 一部는 自己所屬大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두개의 大學에서 學點을 이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의 比率는 여기서 斷言할 수는 없으나 1/3 또는 1/2을 자기 소속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생각해 볼만 하다.

이와 같이 하는 경우의 利點은 전술한 바와 같은 난점을 시정할 수 있고 大學間的 學點 認定 및 學位課程의 이수를 促進시킨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재차 促求되는 것은 國內大學院의 교육평가가 充實化되어야 하며 따라

서교수들간의 이러한 努力이 토의 대화를 통해서 行動化되도록 하는 것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와 같은 學位課程을 이수하는 교수에게는 우선적으로 장학금 또는 연구비가 지급되고 그들의 擔當時間數를 감면하는 것이 요청된다. 사실 嚴格히 말한다면 現職教授로서 週當 10時間씩 강의를 하면서 學位課程을 이수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현재 우리의 사정으로 보수를 지급하면서 강의 없이 學位課程을 이수케 한다고 하는 것은 기대 가능성이 없으므로 수업시간의 감면을 인정하고 장학금은 등록비와 약간의 교통, 체재비의 전액 또는 一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세째로 이들에게는 交換教授의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 한학기나 1년을 해당 대학에서 이수하거나 論文을 作成할 수 있게 하면 進修한바와 같이 교통상의 시간절약이 크게 되며 또한 이수과정의 一部만을 他大學에서 하게 하는 경우 이러한 교환교수의 우선순위는 더욱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 研究支撥

교수들의 연구지원은 이미 政府가 연구비의 지급등을 통해서 하여 오고 있으며 큰 成果를 거두고 있고 每年 이의 成果가 向上되고 있으나 몇가지 더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문교부가 지급하고 있는 기초과제의 연구비의 지급은 대담하게 地方大學에 배정이 되었으면 한다. 정책과 제의 경우는 가급적 地方大學教授들과의 共同研究를 권장하는 것이 이의 성격상 바람직 할것 같다.

특히 後者의 경우 연구의 대상이 地方이거나 地方이 포함되고 있는데 서울의 교수들만이 참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다. 進修한 바와 같이 能力發展의 方法으로서 共同研究는 가장 좋은 方法의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제언을 하는 또하나의 이유는 서울의 교수들은 문교부의 연구비 말고 他部處, 他機關, 社會로 부터 이러한 연구비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地方大學 교수들 보다 월등히 많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기초연구비를 地方大學에 중점적으로 배정하는 경우 이러한 配定政策의 內容이 地方大學에 分明히 周知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들의 不滿解消와 士氣昂揚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둘째, 國內의 모든 大學 특히 地方大學의 경우 연구교수제를 시작하도록 강요하였으면 한다.

이의 자격은 5年 또는 7年으로 하든간에, 최소한도 한학기나 1年은 가르치는 부담없이 자유로이 연구할 수 있고 그의 結果를 論文이나 著書로 發表케 하는 것이다.

私立大의 경우 저항이 있을 것이 예상되나, 學生數의 급증에 따른 收入의 증대에서 오는 惠澤을 교수들도 받을수 있게 문교부가 지도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

이다.

세제, 교수들의 擔當時間數를 점차 감소하는 하나의 方案으로서 年15時間으로 하는 것이다.

과거와 같이 한강좌 두시간 씩 週에 1회 강의 할때와 50分씩 區分하여 週3회 하는 경우 강의자인 교수들의 부담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變化와 보조를 같이 하여 擔當時間數를 감면하는 것도 國立大學과 學生數의 증원이 큰 地方大學에서 먼저 시작하게 되면 기타의 大學도 이에 따르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세제로 學會活動을 지원하는 것이 요청된다. 우리나라 교수들의 연구를 時代別로 보면 50年代에는 많은 學會의 탄생은 되었으나 교수들의 연구는 多分히 個人別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것이 學會中心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은 60代부터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現在 거의 모든 學會의 財政力도 약하고 學會報도 年一回가 고작인 것이 大部分의 경우이며 그나마도 수록될 論文의 수집자체가 용이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않은 것이 실정인 것 같다. 이의 根本理由는 교수들의 연구업적이 1次的으로 學會報에 게재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各自의 소속대학에서 발간하고 있는 學術誌에 게재하거나 또는 市中の 一般誌에 게재하는 경우까지도 있어 分散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各大學의 교수들이 자기 소속 대학을 떠나 汎國家的으로 學會를 中心으로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하며 이의 결과를 學會報에 게재하는 것이 學問의 發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先行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현재도 문교부에서 學術團體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것은 앞으로 더욱 급성장을 시켜 學術誌의 발간에 1次的인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다음이 學會中心의 研究, 研究發表會를 갖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모든 學術活動은 學會가 中心이 되고 各大學別의 活動 특히 學術誌의 發刊은 점차 學會誌에 統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 外國留學

今年부터 문교부는 國費로 100名の 교수를 外國에 유학시키고 있어 建國後 가장 큰 歷史的인 事業의 하나로 벌리고 있으나 문제는 수요에 비하여 100名은 너무나 적으므로 이의 擴充을 위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全的으로 國庫로 하는 것도 하나의 方案이나 外國과의 合資(matching)로 하는 것도 바람직한 方法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先進諸國은 大體로 이와 같은 文化交流資金을 갖고 있으며 이들도 新生國과의 合資를 원하고 있는 것이 一般的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와 같이 資金이 커지면 유학갈 수 있는 범위 자격을 擴大하여 보다 젊은 사람이 갈 수 있게 年齡을 引下함과 동시에 年老한 사람은 시찰, 훈련의 성격을 띤 단기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요망된다.

특히 年老한 語學의 能力이 약한 사람의 단기시찰 훈련의 성격을 띤 것을 할 必要는 한국의 大學內에서는 그분들이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가 새로운 改革을 하고자 해도 上位者의 이해 없이는 어려운 것이 常例이기 때문에 上級者의 이해 증진이 先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 外國에 가거나 문교부가 시작한 國費以外의 돈으로 유학을 한교수에 대한 經歷의 계산이 되어 있지 않거나 國內에 있는 경우보다 不利하게 하고, 유학기간중 보수의 지급이 거의 없는 것이 私立大學의 一般的인 現象이다.

이와 같이 하여서는 교수의 能力發展을 촉진하는데 지장이 많을 뿐만 아니라 大學이 研究機關이라고 하는 성격을 망각하고 있는 처사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것은 앞으로는 문교부의 國費以外의 돈으로 유학을 하는 경우에도 經歷計算은 물론 一定比率의 보수가 지급되도록 문교부는 모든 大學에 요청하고 이것이 실천에 옮겨졌으면 한다.

5. 教授의 社會的 寄與(産學協同)

一般的으로 교수들의 3大役割을 연구, 교육, 사회적 기여 또는 봉사로 들고 있는데 우리의 과거를 보면 이中 교육에 치중되었으며 그 다음이 연구이고 사회적기여는 최근까지 등한시 되어온 役割인 것이다.

이와 같이 된 이유는 교수들의 役割觀에도 원인이 있었으며 이들의 기여를 요청하는 수요자측의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교수측의 경우는 그들의 役割이 연구와 교육에만 있는 것으로 役割을 인지하고 産學協同自體를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여온 교수가 적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이에 反하여 수요자측에서 교수들의 기여, 참여를 별로 必要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의 주된 이유는 産業界나 기타 社會團體에서 必要로 하는 知識技術의 水準이 교수의 조언을 必要로 하는 정도의 것도 아니며 또한 교수들이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狀況文化에 대한 이해도 높지 못하여 그들이 원하는 適切한 조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은 점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現況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相互間에 면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증대하여 相互間의 이해증진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各社會團體에서는 우선 즉각적인 利益을 위해서보다 앞으로의 相互利益을 위하여 여러가지 委員會에 교수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大學側에서는 一般社會人, 商工人들이 이수할 수 있는 長短期 또는 學位, 非學位研究課程을 설정하거나 學生들을 社會團體에 實務修習으로 내보내 學生時節부터 실세계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언은 궁극적으로 우선 당장 큰 혜택을 相對方으로부터 받겠다는 조급한 생각보

다도 앞으로의 協同을 위한 기반을 造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접촉에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처음부터 相對方에게 지나친 기대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하는 것이며, 우선은 서로 相對方의 사정을 이해하고 서로 相對方이 必要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탐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必要한 것은 교수들이 이러한 機會를 통하여 무엇이 연구 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연구는 절대 다수의 경우 응용 처방적 연구이며 이에 소용되는 연구비는 產業界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로 이와 같은 產業界로부터의 수요를 수용하는 體制가 大學內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研究所의 설립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大學의 研究所는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지나치게 分化되어 있으며 大部分이 不實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 時點에서 必要한 것은 이들의 統合과 進실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研究所라고 할수 있으려면 年度別 研究費, 研究人力, 必要로 하는 情報, 圖書 및 會計處理가 제도화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제구실을 하고 있는 大學內의 연구소는 全國에서 극히 소수에 不週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文教部는 數많은 研究所에 分散 支援하지 말고 資源을 무기로 하여 우선 統合을 조건으로 하여 지원하면서 연구소다운 연구소로 育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네째 이와 같이 교수와 사회인 間의 접촉을 통하여 서로 도울 수 있는 길이 모색되어 교수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적극 도우는 것이 바람직하나 교수들의 立場에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產業界가 당장 必要로 하는 응용연구만 하다보면 기초연구를 통한 교수의 能力向上이 소홀히 되어 얼마 안가서 無能者化할 우려까지 있게 되기 때문에 교수들은 의식적 계획적으로 스스로의 能力發展을 기초연구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고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섯째로 이러한 產業協同을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재단이 형성되고 있으나 이것도 제각기 하고 있어 零細性을 면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產業協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는 一定規格以上の 財團을 육성함과 동시에 보다 큰 惠澤을 稅制 기타 여러면에서 줄 수 있게 함으로써 統合大型化의 길을 걷게 하였으면 좋겠다.

6. 結 語

우리는 현재까지 유교적인 傳統과 外援에 의존하여 우수한 大學教授의 供給을 하여왔으며 우리 스스로가 資源을 투입하여 교수의 양성, 供給을 하여 오지 않았던 것이 事實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傳統과 外援이 거의 供給機能을 하지 못하게 되어가는데 反하여 國內的 事情은 보다 우수한 다수의 교수를 必要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效率的인 解

결을 위한 具體的인 方案을 앞에서 詳論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중복을 피하고 가장 기본적인 方案만을 든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수의 能力을 精確하게 평가하고 우수한 교수에 대하여 높은 社會的 評價를 받을 수 있게 物質的 非物質的 待遇와 惠澤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와 같이 하여 우수한 잠재력을 가진 젊은이가 大學院에 進學하는 경우 현재 우리의 경우 문제는 이들에 대한 物質的 支援과 大學院教育의 內實化인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支援은 우리의 經濟的의 伸張에 따라 가까운 時日內에 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단시일내에 시정되기 힘든 것은 內實化이며 이를 위한 교수들의 行動變化인 것이다.

現在까지와 같이 大學院長은 年老하고 臆縮고, 조용히 學者의 상징으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 役割을 인지하고 있는 院長, 總學長에게 大學院 教育의 革新을 기대하기는 힘들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注力하여야 할 것은 상술한 여러가지 支援, 制度의 개선 이상으로 大學院教育에 책임있거나 영향력 있는 교수들의 行動變化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이의 구체적인 방법은 앞으로 연구되어야 겠으나 이분들간의 대화, 토론을 大學院教育에 관하여 하되 成功的인 實例를 中心으로 토론회를 계속 반복해서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와 같은 努力없이 우수한 교수인력을 서울의 一流大 大學院에서도 양성, 공급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언제까지나 外國의 大學에 의존하여야 된다는 결과 밖에 초래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부터 절대다수를 國內大學院에서 공급할 수 있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